

“환난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 전 세계 교회 동참 촉구



**IDOP
 ONLINE
 2024**

INTERNATIONAL DAY OF PRAY
 Sunday 3 November | 7:30-8:30



▶ 오는 10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을 앞두고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종교자유위원회(RLC)가 예년과 같이 전 세계 교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7일 전했다.

WEA 고드프리 요가라자(Godfrey Yogarajah) 종교 자유 대사는 “오늘날 박해의 현실은 냉혹하다. 작년에 약 5,000명의 기독교인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1만 4,000개가 넘는 기독교 재산이 공격을 받았고, 4,000명 이상이 종종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구금됐다”고 말했다.

요가라자 대사는 “종교적 자유가 위협받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 있으며, 그들의 모범을 통해 격려를 받고,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한다”고 밝혔다.

IDOP 2024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따라 “담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과 10일에 진행된다. 주최 측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여 주도록 간구하며,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자”고 요청했다.

요가라자 대사는 “우리의 기도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IDOP 웹페이지는 “교회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로 제작된” 여러 자료를 제공한다.

스페인에서는 오는 10일 스페인 복음주의연맹(AEE)과 오픈도어가 공동으로 아프리카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랑스 오픈도어는 프랑스 복음주의연맹(CNEF)과 프랑스 개신교 연합과 협력해 오는 10일 로마서 8:35-39 말씀과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IDOP를 개최한다.

스위스 오픈도어와 스위스 복음주의연맹은 오는 10일과 17일을 IDOP를 위한 주일로 정하고, “부르키나파소, 이란, 북한”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 복음주의연맹(EAD)도 10일 지역 모임에서 부르키나파소, 이란, 북한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교회에 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시편 86:7-9)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인 박해받는 교회를 주목하며 세계 여러 나라가 마음을 모아 함께 연합하는 기도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올려드리는 믿음에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또한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이들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선교완성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세르비아, 기차역 붕괴 14명 사망에 항의 시위

세르비아에서 14명이 숨진 기차역 야외 지붕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4일 A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가에 있는 건설교통부 청사에 수천 명이 모여 “체포, 체포”를 외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들은 청사 진입을 막는 경찰을 향해서도 “살인자를 지키고 있다”고 항의했다. 지난 1일 낮 세르비아 북부 도시 나비사드의 기차역에서 콘크리트로 된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시민들을 덮치면서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콘크리트 잔해에 깔렸다. 이 사고로 6세 소녀를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들은 모두 사지를 절단했다. 야당 정치 활동가 니콜라 리스틱은 시위대에 “가능한 모든 곳에 피 묻은 손을 남겨서 그들이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언 11:19-20)

하나님, 3년간의 보수공사 끝에 다시 열린 기차역이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붕이 무너져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세르비아의 끔찍한 참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닥친 사고로 인해 낙심 가운데 있을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부상자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십시오. 불안한 정국과 부정부패로 인해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법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 볼리비아, 신구 권력 갈등으로 주민들 고통

남미 볼리비아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쟁에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정부는 군부대를 습격해 장병 2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난 3일 말했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코차밤바주 차파레에서 민간인 비정규(무장) 단체가 군사기지 3곳에 무단 진입해 장병 200명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이들은 총기류와 탄약까지 탈취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외교부는 공격 주체를 “국가 및 대중 경제에 관심이 없는 데다 전직 대통령 개인 및 선거 이익 실현만을 추구하는 그룹”이라며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모든 사람은 체포돼 사법기관 처분에 따라 기소 및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미주인권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불법 구금된 장병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화를 우선시하며 갈등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 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편 80:1,7)

하나님,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촉발된 분쟁이 3주 가까이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장병들이 인질로 붙잡혀 더 험악한 상황에 내몰린 볼리비아를 다스려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붙잡힌 인질들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속히 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좌정하사 그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도착 정령송배를 따르는 오래된 이 나라의 관습에 젖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옛 사람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볼리비아에 주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여호와 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회복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태리, 대리모 임신 금지 해외까지 확대**



이탈리아에서 자국 내에서만 대리모 임신 금지 조치를 해외로까지 확대했다고 워싱턴 스탠드가 22일 전했다. 지난주 이탈리아 상원에서 84대 58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던 대리모 임신을 확장해 이탈리아인들의 다른 나라에서 대리모 임신을 금지했다.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는 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여성의 몸과 아동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상식적인 규칙이다. 인간의 생명은 상품이 아니며, 생명에는 가격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대리모 임신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는 대리모 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지난 2년 동안 대리모 산업은 40억 달러(5조 5,208억 원)에서 140억 달러(19조 3,228억 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빈곤한 여성들이 아기를 원하는 부유한 부부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대리모 임신은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리모 임신은 임신성 당뇨병, 고혈압, 전치 태반, 제왕절개 등 어머니의 합병증이 더 높았으며, 자발적인 임신에 비해 조산될 확률이 세 배 더 높았다. 또한, 생명윤리문화 네트워크는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난소 꼬임, 난소낭종, 만성 골반통, 조기 폐경, 가임력 상실, 생식암, 혈전, 신장 질환, 뇌졸중, 경우에 따라서 사망 등 여성에게 수많은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모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 위험에는 조산, 사산, 저체중 출생, 태아 이상, 고혈압이 포함된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기 출생시 물리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면 장기간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대리모 임신의 위험성이 문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이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이 없다.

가족연구위원회 생명존중센터의 메리 소츠(Mary Szoch) 소장은 대리모 임신이 어머니와 아기 모두에게 매우 해롭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의 대리모 임신 금지 확대조치를 환영했다.

그녀는 “대리모 임신은 현대판 노예제”라며 “빈곤한 여성들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가장 신성한 관계를 파괴한다. 대리모 여성의 출산 이후 아이가 그녀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나가며, 이로 인해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소츠는 “아이의 생명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며 “어머니와 아이의 분리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그 어떤 금액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이탈리아의 대리모 임신 금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대리모 규제와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미국은 이탈리아의 예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디도서 2:14-15)

하나님, 이탈리아가 대리모 제도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간과하지 않고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리모의 임신을 금지하는 법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는 이 나라를 통해 존귀한 생명에 값을 정하여 상품화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불의한 법을 행하는 나라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말씀의 경계를 허무는 자들에게 진리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선포케 하소서. 이들을 속량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한 주의 백성 삼아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프랑스 부모들, 틱톡 소송…“유해 콘텐츠에 딸 자살”

프랑스에서 일곱 가족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5일 프랑스앵포 등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로르 부트롱 마르미옹 변호사는 4일 파리 근교 크레테유 법원에 틱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모인 소셜 네트워크 피해자 모임 단체 ‘알고스 빅티마’는 틱톡이 자살, 자해,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시켰으며, 이 때문에 원고들의 10대 딸들이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10대 딸 7명 중 15세 청소년 2명은 자살했고, 4명은 자살을 시도했으며 1명은 거식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제레미 씨는 틱톡 영상에 연필깎이 칼날을 분해해 자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이사야 55:3)

하나님, 자극적이며 해로운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는 중국의 틱톡으로 인해 자살과 자해 등 여러 문제로 영혼이 병들어가는 프랑스의 다음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람에 매여 사는 이들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오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프랑스가 겸손히 돌이켜 진리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확실한 은혜를 붙들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 코모로, 이주민 보트 전복돼 25명 사망…브로커 고의로 전복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코모로 해상에서 이주민 보트가 침몰해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4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코모로의 앙주앙섬과 프랑스령 마요트섬 사이에서 코모로인 이주민 여성 7명·어린이 6명을 포함한 약 30명이 탄 배가 뒤집혔다. 이튿날인 2일 아침 어부들이 생존자 5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는 사망했다. 국제이주기구는 밀입국 브로커들이 고의로 보트를 전복시켰다고 밝혔다. 코모로 제도의 일부인 마요트섬은 1974년 독립할 당시 그랑드코모르·앙주앙·모엘리섬과 달리 주민투표로 프랑스령으로 남게 됐다. 프랑스에서 가장 가난한 자치 지역이지만, 프랑스의 인프라와 복지가 적용돼 많은 코모로인들의 이주 목적지 중 하나다. 브로커를 통해 앙주앙섬에서 동남쪽 70km 해상을 건너 밀입국하는 코모로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지난 9월에도 12명을 태운 이주민 보트가 앙주앙섬에서 출발해 마요트섬에 도착하지 못했고, 8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8명이 숨졌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6:18)

하나님, 코모로 제도의 다른 섬들과 달리 프랑스 행정구역으로 편입돼 이에 대한 유익을 얻고자 끊임없이 마요트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코모로인들을 주께 위탁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탐심을 채우며, 고의로 보트를 전복시켜 살 소망까지 끊어버린 브로커들을 꾸짖어 주시고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 땅의 것을 구하며 바라는 코모로 제도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그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박해받는 소수의 성도를 통해 하늘의 소망이 전파되어 영혼의 피난처 되신 주께로 인도하소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엘지비티큐(LGBT) 성정체성 보유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천 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쿼어담당관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고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쾰른스포츠대학의 베티나 룰로프는 세계육상연맹을 비롯한 상당수 체육단체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서도 “스포츠는 결코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3,5,7)

하나님, 독일에서 성별 판단을 자기에게 맡기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되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원하는 것을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나가는 상황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범죄자의 남용과 여성, 청소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불의한 법을 시행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정부를 책망하사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 복음을 외치게 하사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파키스탄 라호르, 대기오염 심각으로 수만 명 호흡기 질환 치료

파키스탄 북동부의 라호르에서 기록적 대기 오염으로 1주일 만에 수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뉴시스가 AP통신을 인용해 6일 전했다. 살만 카즈미 파키스탄 의사협회 부회장은 “1주일 만에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며 “어디에서든 기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호르는 지난 3일 공기질지수(AQI)가 1,067을 기록한 이후, 6일 아침 1,1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공기질지수가 300을 넘으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에 당국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라호르 도시 전체에 대한 완전한 봉쇄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편자브 지방 고위 장관 마리움 아우랑제브는 도시의 완전한 봉쇄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사도행전 17:25,28)

하나님, 파키스탄의 기록적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수만 명에 달하여 봉쇄될 위험에 처한 이 땅을 의탁드립니다. 연간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오염 수준에 있는 파키스탄과 이와 관련된 인접 국가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주께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복음을 계시하사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헛된 신을 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옵소서.

▲ 쿠바, 허리케인 피해 복구 중 강력 허리케인 ‘타격’

허리케인 ‘오스카’ 피해 복구에 한창인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 6일 또 다른 강력한 허리케인이 돌진하면서 정전과 항공기 결항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쿠바 대통령실, 기상청, 전력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쿠바에는 3등급 허리케인 ‘라파엘’ 영향으로 아바나를 비롯한 서부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졌다. 쿠바 기상청은 엑스(X-엣 트위터)에 “라파엘의 최대 풍속은 시간당 185km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쿠바 전력청은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2시 48분께 국가 전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비필수 시설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쿠바 관영 그란마는 정부가 섬 대부분 지역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근로자들이 홍수에 대비해 해안선을 따라 시설물 긴급 보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쿠바는 지난 달 말 동부에 허리케인 ‘오스카’가 상륙해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편 36:9)

하나님, 얼마 전 쿠바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상륙해 암흑 상태에 빠진 이 땅을 돌봐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눈에 보이는 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회복이 쉽지 않은 이 나라에 빛으로 임하사 살아갈 생명의 원천이 진실로 주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때 쿠바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난과 부유함, 그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쿠바 영혼들을 통해 주님이면 충분한 예수교회를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